

정훈택 교수의 “주님의 기도를 새롭게 번역하며”에 대한 논찬

김영봉*

1. 새로운 번역의 필요성

선교 2세기를 맞이하여 한기총 교회 발전 위원회에서 주의 기도문에 대한 번역을 검토하고 새로운 번역에 대하여 탐색하려는 것은 좋은 시도다. 언어라는 것이 생명력이 있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모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주기도 번역문을 검토하면서 변화된 현시대 혹은 미래 시대를 위해서 바뀌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 작업에 초청을 받아 작업을 해 가면서, 몇 가지의 난점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첫 번째의 문제는 전통에 대하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경고성(tenacity)이다. 이것은 비단 한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종교적 공동체가 어느 정도 제도화되고 교권화되고 나면 변화에 대하여 매우 거부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성서의 경우, 여러 가지의 새번역이 나왔지만 아직도 그 어느 번역도 개역 성경을 대치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이러한 경향을 증명해 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기도문을 새로 번역했을 때, 과연 그것이 한국 교회의 공교회용으로 수용될 수 있을까?

두 번째의 문제는 교회 전체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겠는가 문제다. 과연 오늘의 한국 교회처럼 다양한 신학적 입장들이 참여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의 번역으로 통일될 수 있겠는가? “대개”라는 단어 하나조차도 해결하지 못하여 첨가와 삭제를 반복해 오고 있는 우리 교회들이 과연 전혀 새로운 번역에 일치할 수 있을까? 더구나 번역은 어차피 신학적 해석을 반영하게 되어 있다. 아무리 직역하려고 노력해도, 하나의 언어로부터 다른 언어로 바꾸려면 해석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해석을 최소화하면 모호한 번역이 되고,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해석을 최대화시키면 통일은 영영 불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표준새번역 문제를 통해서 겪은 바 있다. 억지로 합의를 이끌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 통일 찬송가처럼 개악(改惡)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오히려 현재의 번역을 그대로 공교회용으로 사용하면서, 몇 가지의 새로운 번역들을 제안하여 이해를 돕고, 각 교회 지도자들의 선택에 따라서 사용하도록 여지를 제공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정훈택 교수는 자신의 번역을 “자라나는 새 세대”를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번역은 충분한 존재의 이유를 가진다. 따라서 여러 가지의 개성적인 번역들을 마련하여 좀 더 포괄적인 이해를 돕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은 대안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이하에서는 정훈택 교수(이하에서는 ‘번역자’로 표기하겠다)가 제안한 번역과 그에 대한 해설에 대하여 평가할 것이다. 우선 밝힐 것은 번역자가 제안한 내용 중에서 필자가 동의하거나 별이의가 없는 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는 점이다. 지면의 제약 때문에 불가피하게 필자가 달리 생각하는 부분만을 언급했다. 이 논찬이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 협성대학교, 신약학.

다.

2. 번역의 원칙의 문제

번역자는 3.2에서 “신학적 번역을 피한다”는 원칙을 표명했다. 신학적 번역을 배제하고 문자적으로 최대한 원문에 다가가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원칙이 과연 지켜질 수 있는가? 우선, 주기도에 대한 가장 심각한 논란 중 하나는 “이 기도문이 종말론적 기도문인가?”에 있다. 특히 요아킴 예레미아스(Joachim Jeremias)는 이 기도문이 철저히 종말론적이라는 입장을 아주 치밀하게 증명했고, 적지 않은 수의 학자들이 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기도문을 종말론적인 기도문으로 보느냐의 문제는 단어 하나 하나에 대한 번역에 영향을 미친다. 번역자의 번역은 이 기도문을 종말론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의”라는 번역을 버리고 “하루치”를 택했다. 이것은 매우 깊은 신학적 해석의 결과다. 번역자는 신학적 해석을 하지 않았다고 할지 모르나, 이 논쟁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루치”라는 번역은 분명히 하나의 신학적 입장을 선택한 것이다.

번역자는 함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신학적 해석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한 것 같다. 하지만 번역을 하는 가운데 신학적 해석을 최소화하는 것이 처음부터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신학자들이 이런 논의를 할 필요도 없다. 새로운 번역의 목적이 주기도의 의미를 더 분명히 전달하는 데 있다면, 오히려 신학적 해석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신학적 입장의 차이가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그 입장에 따라서 두 개 혹은 세 개의 번역을 제공하면 되지 않을까?

3. “당신의” 혹은 다른 인칭 대명사의 문제

번역자는 하나님께 “당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우리의 어법상 적절치 않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현재의 언어적 상황을 감안하여 “당신”이라는 번역을 택하였다. 사실, 우리말은 이미 상당히 서양화되었다. 우리 어법을 고려하지 않고 서양 언어들을 직역하여 사용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당신”이라는 호칭이 찬송이나 기도문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굳이 “당신의”를 “아버지의”로 바꿀 이유가 없다. 이 점에 대해서는 번역자의 입장에 동의한다.

하지만 우리의 언어 관습은 인칭 대명사를 생략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것을 진화가 덜 된 증거로 해석할 수도 있고, 덜 과학적인 증거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언어 관습에서는 굳이 인칭 대명사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그래도 뜻이 통한다. 예컨대, 우리는 누구에게나 선물을 줄 때, “자, 선물이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This is my gift for you”라고 말한다. 우리의 언어 관습에서는 “분부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누구의 명령인지, 누가 행하겠다는 것인지를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그렇지 않다. “I will keep your order”라고 말해야 한다. 우리의 어법이 꽤 많이 서양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칭 대명사의 생략 경향은 여전하다.

따라서 굳이 “당신의”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도 된다. 아니, 오히려 반복되는 “당신의” 때문에 번역이 간결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 점에서 필자는 개역의 번역이 매우 좋다고 생각한다. 그 번역은 분명히 우리의 언어 습관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다. 둘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금새 드러난다.

| 개역 | 정훈택 역 |
|-------------------|-------------------------|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
|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 <u>당신의</u> 이름이 거룩하게 되소서 |
| 나라이 임하옵시며 | <u>당신의</u> 나라가 오소서 |
|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 <u>당신의</u> 뜻이 이루어지소서 |

4. 세 동사의 번역의 문제

소위 “당신-기원”(Thou-petition)에 나오는 세 개의 동사를 어떻게 번역하는가 하는 문제가 논점 중 하나다. “하기아스테토”(αγιασθητω)는 단순과거 수동 명령형이며, “엘테토”(ελθετω)는 단순과거 능동 명령형이고, “케네테토”(γενηθητω)는 단순과거 중간태 명령형이다. 전통적으로 이 동사를 번역하는 데 있어서 주어를 숨긴 채 수동형으로 번역하였다. 번역자도 역시 이 세 단어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명시할 경우,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통치권을 세우고 뜻을 이루는 모든 일이 일방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활동으로 생각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분명히, 이 기원문 안에는 기도자의 결단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 행동에 우리도 참여할 것이라는 결단이 있어야 제대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체로 내세우지 않고 수동태형의 번역을 택하였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때 유대인들이 수동형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주체로 내세우기를 꺼렸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여기에서 사용된 세 개의 단어 형태는 그러한 유대적 정서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에도 굳이 수동형을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우리말에서 수동형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소서”가 훨씬 분명하다. 이렇게 번역할 경우, 인간의 책임이 면제되는가? 필자로서는 앞의 번역에는 기도자의 참여성이 더 분명하고 뒤의 번역에는 그 참여성이 떨어진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원문이 훨씬 더 무책임하게 느껴질 수 있다. 어차피 세 단어의 주체가 하나님인 것이 분명하다면 명백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5. “나라”의 번역 문제

번역자는 개역처럼 “나라”를 그대로 직역했다. 최대한 직역을 하겠다는 원칙을 지켰다. 하지만 이 경우에 직역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신약신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처럼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주체가 또 있을까? 지난 20세기의 신약신학의 논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 학자들은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수습 단계에 이른 것이 있다. 즉 “나라”는 아람어 “말쿠트”(מַלְכוּת)의 헬라이어 번역 “바실레이아”(βασιλεια)를 직역한 것인데, “바실레이아”는 어떤 영역을 의미하지만 “말쿠트”는 영역보다는 통치권에 대한 의미를 더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영어권 학자들은 Kingdom of God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Reign of God 혹은 Rule of God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는 영역의 개념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적

어도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에는 통치의 개념이 분명하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바실레이아”는 “다스림”으로 번역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나라이 임하옵시며”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세상에 공고하게 자리 잡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나라”라는 번역으로 그대로 갈 경우,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헤성의 도래처럼 오해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은 저 세상에 있던 어느 공간이 우리의 대기권 안으로 진입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는 별로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라”를 “다스림”으로 바꾸는 것을 제안한다.

6. “하루치 밥을 오늘”

번역자는 여기에서 “에피우시오스”(επιουσιος)를 “내일의”로 번역하지 않고 “하루치”라 번역했다. 앞에서 보았듯이, 이 선택은 이 기도문의 전체적인 의미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필자는 번역자의 선택이 옳다고 본다. 여기에서 의도된 것은 만나와 같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 조건이다. 그것을 “하루치 밥”으로 번역한 것은 잘된 것이다. 이것을 “내일의”로 번역하고 이 어구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음식까지 기대하는 것(Jeremias)은 지나친 일이다. “아르토스”(αρτος)를 “밥”으로 번역한 것도 잘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에게는 “양식”이라는 말이 더 와 닿는 것은 왜일까? 혹은 “하루의 끼니”라고 하면 어떨까?

7. “빛”과 “죄”의 문제

“오페일레마타”(οφειλήματα)를 번역자는 “빛”으로 그대로 번역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사실, 비유적 언어를 개념적 언어로 바꾸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 비유적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해석의 여지를 모두 제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빛”을 죄로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두자는 제안은 받아들일만하다. 다만, “빛”과 “용서”가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죄를 용서해 준다”는 말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빛을 용서해 준다”는 말은 어색하다. 또한 “빛”이라는 말이 현대에 와서 경제적인 용어로 굳어져 버렸다는 문제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빛진 자들을 용서한 것처럼”이라고 했을 때, “빛”의 메타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빛을 진 사람들만을 생각할 수 있다. 좀 더 비약해서 말하자면, 돈을 빌려 준 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 기원에서 어색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죄”라는 개념적 언어가 비유적 언어의 상상력을 없애버리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오해의 여지로 볼 때에는 “빛”이라는 언어가 더 심각하다. 실제로 중학생 아들에게 빛으로 번역하여 생각해 보라고 했더니, 훨씬 더 모호하다고 대답하였다.

“빛”이라는 번역보다 “죄”라는 번역이 더 안전하기는 하지만, “죄”라는 용어도 오해의 여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일반인들은 “죄”라는 말을 들을 때 법률적으로 이해를 하게 된다. 법에서 정하는 죄만이 이 기원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반면, 그리스도인들은 “죄”라는 개념을 교리적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죄”라는 신학적 용어는 적당한 번역이라고 할 수 없다. 좀 더 일반적인 단어 중에서 “빛”의 개념과 “죄”의 개념을 포괄할 수 있는 것이 “잘못”이다. “잘못”은 교리적이기도, 법률적이기도 않기 때문에 그 의미가 포괄적이다. 따라서 이 기원에서 예수께서 의도한 내용을 잘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8. “시험”에 대한 해석의 문제

번역자는 “페이라스모스”(πειρασμος)를 신학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냥 중립적인 의미로 번역해 놓기를 제안하였다. 번역자는 “이 시험이 시련인지 유혹인지 아니면 중립성을 가진 시험 인지는 해석과 주석의 과제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부연하기를, 이 기도는 “평안하고 순탄한 길을 하나님께 청원하는 내용”이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하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이것은 예수의 가르침에 어울리지 않는다. 예수께서는 평안하고 순탄한 삶을 구하라고 이 기도문을 주신 것이 아니다. 주기도문의 맥락에서 볼 때, “페이라스모스”는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시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페이라스모스”를 “유혹”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제일 좋다. “시험”이라는 번역은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오해의 가능성이 크다. 이것과 관계하여 번역자는 부정적인 유혹의 의미로 번역할 때, “시험에 빠지는 것 혹은 시험에 드는 것은 사람의 탓이요, 이것을 막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해석이 깔려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보편적인 해석이 아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소서”라는 기원 안에 이미 유혹에 빠지지 않고 고결한 삶을 살겠다는 기도자의 의지가 배어 있다. 여기서 기도자는 유혹에 맞섰던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이 기도를 드리게 된다.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속 사람이 강건하지 못할 때에는 스스로 유혹을 구실 삼아 죄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유혹을 거부하려 하지만 끝내 이기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유혹에 대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 안으로 끌어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유혹을 견뎌 이길 수 있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9. “악”의 문제

마지막에 문제되는 것은 “악에서 구하소서”의 번역의 문제다. 전통적인 번역과 번역자의 새 번역은 모두 “투 포네루”(του πονηρου)를 중성으로 번역했다. 하지만 원문 상 이것은 중성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남성으로 번역할 수도 있다. 중성으로 보면 “악행에 빠지지 않게 해 달라”는 뜻이 되고, 남성으로 보면 “악한 자로부터 지켜 달라”는 뜻이 된다. 여기에서의 “악한 자”는 사탄을 가리킨다. 상당히 많은 수의 주석가들은 남성으로 번역하는 것이 마태복음 전체의 흐름에 맞다고 본다. 그런데 왜 많은 번역자들이 중성을 택하는가? 아마도 “악한 자”의 실존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 때문일 것이다. 물론 필자는 번역자도 역시 그런 불편함 때문에 중성을 택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다. 대체적인 경향이 그렇다는 말이다.

하지만 원문을 존중한다는 원칙이 지켜진다면, 우리가 그 개념에 대하여 편안하지 않더라도 가장 정확한 의미를 따라야 한다. “악한 자”가 불편하다면 “악한 세력”으로 의역해도 될 것이다. 바로 앞에 나오는 기원(“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과 연결시킬 때, “악”보다는 “악한 세력”이 훨씬 자연스러움을 알 수 있다. 기도자는 자신을 유혹으로 이끌어들이는 악의 세력(현대인들은 이것을 영적인 존재로 해석할 수도 있고 지상적인 악한 권력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이 엄연히 현존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과학적 세계관으로 철저히 무장된 현대인들도,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지는 않더라도,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자신을 압도하여 비진리를 따르게 하는 어떤 힘(내적인 힘이든 외적인 힘이든)이 있음을 느끼고 산다. 그러므로 “악한 세력”이라는 번역이 원문의 뜻에나 기도문 전체의 흐름으로 볼 때 더 옳다고 본다.

10. 송영의 문제

필자는 송영을 그대로 두자는 번역자의 의견에 동의한다. 송영은 초대 교회가 주의 기도문을 유대적 경건성에 맞추기 위해서 첨가한 것이거나 혹은 공적 예배의 분위기에 맞도록 첨가해 넣은 것이 분명하다. 미국의 교회에서는 대부분 이 부분을 제거하고 사용하는데, 알고 보면 이것은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송영을 암송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원문에 없기 때문이고, 원문에 없다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송영을 버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 논리대로라면 송영의 바로 앞부분까지도 그대로 암송해서는 안 된다. 현재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마태복음의 기도문 형태가 예수의 육성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인정하는 학자들은 별로 없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원형만을 암송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은 누가복음의 본문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고, 혹은 “예수 세미나”(Jesus Seminar)에서 예수의 실제 말씀이라고 결정한 몇 구절을 암송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요점은, 지금 우리가 주의 기도문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예수의 영성과 초대 교회의 영성을 담고 있기 때문이지, 그 역사성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수가 실제로 한 말만이 의미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가차없이 버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것은 역사비평학이 만들어 놓은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다. 기도를 마치며 모든 위대한 것들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예수의 영성에 비추어 보거나 초대 교회의 영성에 비추어 보아 아무런 모순이 없다.

11. 마치는 말

위에서 필자가 늘어놓은 말이 번역자의 제안이 가지고 있는 빛을 가리지 않았기를 바란다. 하지만 동시에 이 글을 통하여 주의 기도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히 고려해야 할 중요한 논점들을 제기하는 데 성공하였기를 바란다. 끝으로 필자는 위에 제안한 것들을 바탕으로 필자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려 한다. 필자에게 요청된 것은 아니지만, 또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높이소서.
다스림을 이루소서.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뜻을 이루소서.
하루의 끼니를 오늘 주소서.
저희에게 잘못된 사람들을 용서했으니
저희의 잘못도 용서하소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의 세력에서 건져 주소서.
(다스림과 힘과 빛님이 언제나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